

사찰 수행환경 무너진다

북한산·계룡산 관통공사로 전각 기울고 소음 심각

학림사를 비롯한 북한산 지역 사찰들이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수행환경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계룡산을 관통하는 도로도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변 사찰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보문중흥본산인 서울 보문사는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신행환경 전반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학림사(주지 덕오)는 최근 “대웅전과 오백나한전을 비롯한 사찰전각들이 기울고 있다”며 “관통도로 시공사인 (주)서울고속도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림사 회주 도원 스님은 “학림사 뿐만 아니라 관통도로 인근에 위치한 사찰대부분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가 계속된다면 사찰수행환경이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공사

는 학림사의 요구로 지난 2월 7일 중단됐으나 학림사와 (주)서울고속도로의 합의로 2월 18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면서 수많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 계룡산도 풀릴 상황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계룡산 관통도로의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2월 16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구역 무효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곡(갑사 주지) 스님도 “수많은 명찰들이 자리하고 있는 계룡산이 파괴되면 사찰수행환경역시 보전될 수 없다”며 관통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사도 사찰 담당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수행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재개발 사업은 10층



보문사 담장 바로 아래 공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규모 아파트 24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문사는 향후 발파 작업과 도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련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불교NGO, 2005년 ‘내실화의 해’

교육·연구·회원배가사업 중점 전개

환경, 인권, 통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NGO들이 2005년 새로운 사업들을 내놓으며, 외연 확장과 내실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올해 종교자유와 사찰경영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오는 4월 초 출범시켜 종교자유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한다. 또 스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찰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기 위해 ‘사찰경영연구회’를 개조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다.

환경, 인권, 통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계 NGO들이 2005년 새로운 사업들을 내놓으며, 외연 확장과 내실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해외구호사업과 북한동포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는 기존 라오스, 캄보디아 외에 미얀마, 몽골, 베트남, 인도 등으로 구호지역을 확대하고 러시아, 북한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자원봉사단체인 ‘공생봉사단’ 창립도 올해 추진된다. 또 지난해 북한에 의료용 수액 공장설립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농기계 공장 건설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해 온 작은손길(이사장 김광하)은 회원 배가사업을 중심으로 남북청소년이 함께 볼 수 있는 불교동화물 제작·발간한다.

관연기사 14면

지을 스님의 단식을 외호하면서 수행환경 지키기에 전념해온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올해 불교생태학교를 상설화한다. 3월부터는 매월 계절에 맞는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기존의 생명살림봉사과 친환경살림 공양미 운동 외에도 인드라망대학교 전문대학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회원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리산 권역에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는 ‘인드라망대학’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저계층 사회부

와 함께 불교생명윤리 정립작업을 마무리해 낙태, 사형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

유철주 기자

육사신입생 불자비율 최고

육군사관학교 65기 신입생 중 불자 사관생 숫자가 최초로 개신교 등 타종교를 능가했다. 올해 육사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총 228명. 이 중 불교를 불교로 밝힌 사관생은 모두 97명이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각 85, 48명이다.

90년대 이후 육사 신입생 정원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군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유신 기자

연등축제 참가단체 접수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족위원회는 올 5월 8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계사 앞 길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참가단체를 접수한다.

3월 31일까지 불족위원회(02-2011-1747)로 참가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최초 참가 단체일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일산병원 6월 진료시작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6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동국대 이사회는 2월 18일 제207차 이사회를 열어 일산불교병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1132억을 승인하고 6월 1일 개원해 진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원식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와 지역에서 인지도 및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 명성여·중고, 금산중·고, 흥제중학교 명칭

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을 포함 하는 등 일부신사 중·고등학교의 교명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명성여고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고’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일부학교의 교명도 변경되는 시행세척 개정도 이루어졌다.

조용수 기자

백양사 강원 사회복지학 개설

남부대와 연계, 복지사 자격취득 가능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명공) 강원예 정규 사회복지 강좌가 개설된다.

백양사는 2월 17일 “광주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해 금년부터 강원예 입학하는 학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지학 강의를 수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 총무 진우 스님은 “수강 신청자에 한해 남부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하며 등록금 일체는 백양사에서 지원한다”며 “강의는 주1회 열리

며, 남부대학 담당교수들이 직접 강의한다”고 말했다.

전통강원에 사회복지 정규학과가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취득과 함께 학사자격이 주어져 승가대학교 및 동국대 편입이 가능하다.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은 “인재양성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61)392-7324 이준엽 기자

3월부터 천성산 환경조사

지울스님, 23일경 기자회견 예정

천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될 전망이다.

지울 스님 측은 정부는 2월 15일 실무접촉을 통해 2월 중에 공동조사 항목을 합의하고 3월부터는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지울 스님이 23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밝힐 것”이라

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과 이에 따른 습지 고갈’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2월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2심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번 공동조사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총리는 또 “국책사업이 극단적인 방식에 의해 지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울 스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통봉 시민행동 박영관 대표는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유철주 기자

영어로 불교 배워요

영어로 경전을 공부하고 싶다면? 2월 19일부터 10주간 봉은사 동법당에서 열리는 <금강경(Diamond Sutra)> 강의를 주목해 보면 어떨까.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한국본부(WFBY Korea) 클럽25에서 봉은사 포교국장 선임 스님이 강사로 나서 탁났한 스님이 저술한 <금강경> 해

설서를 교재로 영어 강좌가 열린다. 청소년들이 회원인 클럽25에서 주최하는 강좌이지만 강의를 듣는 연령은 청소년층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클럽회원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클럽25의 영어 원전 강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클럽 에리키의 <불교(Buddhism)>, 탁났한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서 <반야심경의 이

해(The heart of understanding)> 등을 교재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WFBY Korea 회장 선임 스님은 “처음에는 영어로만 강의했는데 어려워해서 요즘에는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강의한다”며 “영어 위기와 독해가 가능한 사람 누구에게나 강의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강좌 등록비는 학생 1만원, 일반인 2만원. (02)545-8177 강지연 기자

“2월 17일은 불자님 덕의 가장 ○○○님의 생일입니다. ○○사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축하 발원드립니다.”

유·무선 전화와 핸드폰 등을 활용한 포교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돼 화제다.

KT한통퀵서비스는 “각 종교기관의 데이터 서비스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정

찰이나 단체의 행사, 신도의 생일·제사 등을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한꺼번에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도관리에 초점을 뒀다.

KT한통퀵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유·무선전화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휴대폰을 활용한 종교행사 안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는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적시에 일괄적으로 포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KT한통퀵서비스는 링고, 크로샷 시스템의 장점으로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과 기존의 인쇄물의 우편 발송보다 월등히 저렴한 비용, 신속성 등을 꼽았다.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KT한통 퀵서비스 정 보전택팀 박 상근 상임법사는 “전화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종교 시설을 찾은 것처럼 경건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2000여가지의 음원을 자체 개발, 이를 음성 및 문자로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획기적인 포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02)755-9999 박병영 기자

“값싸고 빠른 전화포교 아시나요?”

KT 한통 퀵서비스 음성·문자 포교시스템 개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총림울원 학인모집공고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율행을 지켜 부처님의 해명을 계승하고 수행자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시키고자 율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축총림울원을 개원하고 울원 학인을 모집코자 하오니 방부 신청을 바랍니다.

입방지원자격

- 중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0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모집일정

- 접수 : 2005년 3월 11일까지(음 2월 2일)
- 전형 : 2005년 3월 12일 오후 1시(음 2월 3일)
- 발표 : 2005년 3월 14일(음 2월 5일)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 양식)	2) 승적서본
3) 졸업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온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6) 건강진단서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8) 사진(4×5) 5매
9) 본인 도장	

문의처

055)382-7182 (종무소 교무국)

불기 2549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통도사 영축총림울원 전계사겸 울주 중산 혜남